

수도권 공간연구

권용우 저, 한울아카데미, 2002, 547쪽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면서 주요 지식기반산업, 공공기구, 의사결정권한 등의 거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거대 경제활동공간이자 사회문화공간이다. 이제까지 수도권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주로 수도권의 경제적인 문제와 수도권과 비 수도권과의 격차의 문제 등에 관심이 기울여져 있었고, 수도권의 공간구조와 논리, 그리고 수도권의 공간변화와 관리 등 수도권자체의 특성과 수도권 주민의 삶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마당에 『수도권 공간연구』의 발행은 매우 반가울 뿐더러 도시연구의 중요한 학문적 업적이자 사회적 공헌의 핵심사례가 아닐까 한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30여년간 수도권에 대한 연구를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수도권의 공간적 주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도권지역 곳곳을 답사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분석한 결과들을 체계화하였기 때문에 이 책은 그 가치가 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강하게 다가온다. 저자는 수도권은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공간변화의 배양기역할을 하는 것에 주목하고, 우리나라 지식과 아이디어의 진원지이자 새로운 혁신과 실험정신의 상호교류지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수도권의 공간분석을 진행한다.

『수도권 공간연구』는 저자가 그동안 수도권에 관하여 논문과 모노그래프 형태로 발표한 글과 새롭게 분석한 내용과 논리를 체계화하여 다섯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주제는 광역도시권 설정에 관해 다루고 있다. 수도권은 넓은 녹지대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와 교외지역의 혼합된 형태로

구조화된 공간으로서, 중심도시를 핵으로 하여 성운형태로 퍼져나가 농촌지역을 비 농촌지역으로 바꾸어 놓고, 마침내 도시적 특성이 농후한 새로운 '준 도시지역'으로 만든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광역도시권의 권역획정을 필요로 한다. 저자는 외국의 사례와 더불어 수도권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광역도시권 획정시안을 제시한다.

둘째로 이 책은 수도권의 이주행태와 인구이동을 분석한다. 수도권으로의 경제력과 하부구조의 집중은 우리나라 인구흡입의 블랙홀 역할을 하며, 수도권 자체의 직업구조의 변화는 물론,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갈등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 책에서 행한 수도권 내외에서 전개되는 인구이동의 정교한 분석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 책은 셋째로 교외화의 공간 패턴을 다룬다. 1970년대 이후 전개된 대도시권화(metropolitanization)는 교외화와 광역화과정을 통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의 스프롤(sprawl) 현상은 공간적으로 무질서하게 분산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서울은 주택, 산업시설, 서비스활동 등을 주변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밀어내고 있어 서울주변의 지자체는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위생시설 등 도시의 하부구조를 설치해야 하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처럼 수도권에 나타나는 교외화 현상의 공간 패턴을 정형화된 논리로 엄정하게 해석하고 분석하고 있다.

네 번째 부분은 수도권 선거행태의 공간구조로서, 2,000만명에 이르는 수도권 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공동체의 특성과 삶의 양식의 정치적 표출형태를 분석한다. 저자는 특히 1987년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다양한 생태학적 변수와 공간변수를 가지고 해석을 하여, 정치행태의 분석이 수도권 주민의 삶의 양식을 인지할 수 있는 지렛대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수도권의 공간관리의 문제와 정책대안을 싣고 있다. 지난 40여년간의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불균형 성장론에 기초한 집적의 논리에 의지함으로서 수도권의 바른 도시화와 대도시화, 그리고 과밀화를 결과하였다. 저자는 수도권의 도시지역과 비 도시지역, 신도시지역과 자연보전권역, 수도권내의 남북문제와 동서문제 등 다양한 관리의 문제에 대해 '지속가능성, 친환경성, 공공적 시민정신, 균형특화' 등의 네 가지 원칙으

로 도시성장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몇십년에 걸친 연구성과의 축적물이자, 현실에 바탕을 둔 문제의식과 이를 해석, 분석하기 위한 독창적인 이론전개와 방대한 자료수집, 세심한 분석력이 돋보이는 저자의 성숙한 학문적 역량이 두드러지는 지리학계의 중요한 학문적 성취라 할 수 있다.

박삼옥(서울대학교 교수)

(2002년 12월 5일 접수)